■ '다락' 지킴이, 김명선 대표·김승일 전 조선대 교수·마재숙 전남대 교수

"음악감상실 '다락' 클래식 갈증 풀어드립니다"

지난 4월 사재를 털어 클래식 음악 감상실 '다락'(cafe.daum.net/darakclassic)을 오픈한 김명선(62) 대표는 클래식 향유 계층이 탄탄치 못한 지역에서 "이 공간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 지" 늘 노심초사였다.

그런 김 대표에게 최근 '다락의 보배이자, 광주의 보배'(김대표의 표현)인 응원군이 생겼다. 다락이 운영하는 클래식 강좌를 진행하는 김승일(69) 전 조선대 음대 교수와 '다락 클래스 1기' 초대 회장을 맡은 마재숙(62) 전남대 의대 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여기에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다락 운영위원'들이 힘을 보태고 있다.

25일 광주시 동구 학동 '다락'에서 만난 세 사람은 "다락이 지역 문화계에 큰 일을 낼 거라고, 큰일을 내고 싶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다락'이 진행중인 클래식 강좌를 책임지고 있다. 4개월 16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클래식 입문반 강좌 '다락 클래스 1기'는 50명으로 꾸려졌다. 피아노를 직접 연주하며 진행하는 그의 강의는 열정적이다.

"클래식 인구가 늘어나려면 음악을 향유하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많아야 해요. 클래식 텃밭을 개간한다는 생각으로 강좌를 시작했죠. 대학에서 '음악으로의 초대'라는 교양 과목을 가르쳤는데, 그 내용을 이번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 의문이 있었어요, 하지만 수강생들이 정말 잘 호응해주고, 잘 따라와 주니까 저로서는 너무 고맙죠. 가르치는 입장에서 무척 신나기도 하구요. 제 강의는 음악을 듣는 포인트를 짚어주는 것, 그러니까 '관전 포인트' 같은 것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4년 전 정년퇴임 한 김 교수는 당초 '다락'에서 음악 틀어줄 이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왔었다. 그러다 김대표와 인연이 닿아 무료로 강의까지 맡게됐다.

마교수는 다락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좌인 '다락 클래스 1기'의 초대 회장을 맡았다.

"의대 다닐 때부터 클래식 음악을 즐겨 듣기는 했죠. 처음 다락에 와서 들었던 음악이 쇼팽의 '피아노협주곡'이었는데 좋은 음향이 갖춰진 공간에서 이 음악을 들으니 너무 좋더라구요. 음악은 집에서도 들을 수도 있고, mp3로도 들을 수 있지만 정말 여기 와서 음악의 진수를 제대로 느꼈죠. 이후로 거의 매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강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어요. 너무 좋은 선생님을 만나 저나 1기 회원 모두 행복해합니다."

'클래식 인구 저변 확대', '클래식을 통한 청소년의 인성 교육'을 위해 공간을 내놓은 김 대표는 수강생들의 열기에 무척 고무돼 있다. 김 대표는 수강생들이 좀 더 자유롭게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다락 바로 옆에 8월 초 오픈을 목표로 제2감상실을 준비중이다.

"다락이 마련한 첫번째 강좌는 대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많이 참여할 줄은 몰랐죠. 지금도 대기자들의 문의가 많고, 다양한 클라스를 열어달라는 요구도 있어요. 김교수님이 클래식의 이론적 배경을 탄탄히 해주시고, 마교수님과 수강생들이 광주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락'에 대한 기대도 많았다. 김교수와 마교수는 '다락'에서 정기적으로 지역 예술인들의 음악회가 열렸으면 하는 바람을 내놓았다. 운영 시간을 늘리고,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도 만들어보자고 의욕을 보였다.

김 대표 역시 적극적이었다. 강의 중 한 시간쯤은 국악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고 싶다는 김 교수의 말에 국악 관련 자료들을 구해보겠다고 말했고, 지역 음악인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또 다른 '계획'을 구상중이었다.

"앞으로 3~4년 지나면 '다락'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 보기 위해 외지 사람들도 많이 찾을 거라 생각합니다. 와, 광주에 이런 곳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공간이 전국적으로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사람에게 자신들이 행복해하는 공간 '다락'에서 꼭 듣고 싶은 '한 곡'을 청했다. 김 대표는 말러의 '교향곡 2번', 마 교수는 베토벤의 '합창', 김 교수는 '아쟁산조'를 골랐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5일 클래식 음악 감상실 '다락'에서 포즈를 취한 김승일 교수, 김명선 대표, 마재숙 교수〈사진 왼쪽부터〉 /김진수기자 jeans@

클래식 입문 강좌 대기자 몰릴 정도로 인기… 제2감상실 8월 오픈

■음악 감상실 '다락'은?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

광주시 동구 학동에 위치한 클래식 감상실 '다락(茶樂)'은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옛 목화예식장 옆 지하에 문을 연 '다락'은 65평 규모의 80석을 갖춘 클래식 음악 전용 감상실이다. 입구와 감상실 전체를 편백으로 꾸몄으며 1억원에 달하는 매킨토시 XRT26 스피커와 B&O 파워앰프를 갖춘 음향시설을 마련했고 대형 스크린으로 1080p 풀HD영상을 제공한다.

감상실은 월~토요일까지 매일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며 영상음악회는 오후 8시부터 진행한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인터넷 카페http : //cafe.daum.net/darakclassic)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클래식 입문자 과정인 '다락 클래스 1기'를 진행중이며 조만간 2기 회원을 모집한다. 강의는 모두 16주 과정으로 김승일 전 조선대 교수, 김명선 다락 대표가 강사로 참여하며 수강료는 4만원이다. 또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는 '청소년영상음악감상회'(어른도 참석 가능)가 열린다. 문의 062-226-010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수묵화에 담긴 풍류미학

의재미술관, 28일~9월 25일 기획전시실

현대수묵화 속에 담은 풍류. 의재미술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기획한 '수묵, 아름다움을 비추는 또 하나의 창' 제2부 '수묵, 시대를 아우르다-현대수묵 속의 풍류'전 이 28일~9월 25일 의재미술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근대수묵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전통수묵의 화풍이 현대 수묵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풍류'를 주제로 현대미술의 다양한 변화 속 풍류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최덕인·오견규·김천일·박문수·박병춘·백현호·서은애·이현열·하 루·박 설 등 20~30대 젊은 작가들부터 중견작가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해, 세대와 기법에 따라 서로 달리 표현되는 풍류의 의미를 비교해 보는 재미도 선사한다. 문의 062-222-3040.

'유원지 산수'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시민과 함께 '희망·사랑·나눔 콘서트'

한국전력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초청, 오늘 5·18기념문화관

한국전력 초청 '(사)서울팝스오케스트라 희망·사랑·나눔 콘서트'가 26일 오후 7시 30분 광주 상무지구 5·18기념문화관 민주홀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시작으로 대중가요를 클래식으로, 클래식을 팝으로 편곡한 다양한 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투우사의 노래' '빌리진' '빗속의 여인 메들리' 등 대중들에게 익숙한 음악을 연주하며 아코디언 솔로곡도 선보인다.

또한 가수 디아가 협연자로 나와 '애인있어요', 디즈니 애니메이션 뮬란 OST 중 'Reflection'을 부르고, 뮤지컬 가수 강승완은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중 'This is the moment' 등을 선사한다.

이번 초청된 서울팝스오케스트라(상임지휘자 하성호)는 1988년 창단한 오케스트라로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 왔다. 전석 무료. 문의 062-260-546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신경숙' 네티즌이 뽑은 한국 대표작가

예스24 조사, 김훈·고은 뒤이어… 젊은 작가엔 박민규

소설 '엄마를 부탁해'의 작가 신경숙이 네티즌이 뽑은 올해 한국의 대표작가로 선정됐다.

25일 인터넷서점 예스24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24일 실시한 온라인 투표에서 전체 투표자 3만6664명 중 16.6%에 해당하는 1만1863명의 지지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소설가 김훈과 고은 시인이 각각 13.6%, 9.4%로 뒤를 이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투표는 평론가 등 4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전년 수상 작가를 제외하고 선정한 총 24명의 후보 가운데 네티즌들이 "올해 노벨문학상 후보로 추천하고픈 작가"를 뽑은 것이다.

차세대 한국을 대표할 젊은 작가를 묻는 투표에서는 '삼미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의 박민규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또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발간된 작품 가운데 뽑는 '2011 한국의 필독서'에는 김훈의 소설 '내 젊은 날의 숲'이 소설 부문에서, 김난도 서울대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시·에세이 부문에서 각각 선정됐다.

신경숙 박민규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계절별미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33,000원부터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기본 3인상 이상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moviehelic
무더운 여름 시원한 극장에서 즐거운 영화와 함께 하세요
상담원연결 방법→(1번 or 2번)→0번
☎ 1588 - 7941
향토사랑 영화사랑 콜롬버스시네마
상무점
1관 카2(전체) / 고양이(15세) / 퀵(15세)
2관 카2 (전체) / 트랜스포머 (12세)
3관 퀵 (15세)
4관 고지전 (15세)
5관 고지전 (15세)
6관 트랜스포머3 (12세)
7관 해리포터와죽음의성물2 (전체)
8관 해리포터와죽음의성물2 (전체)
9관 빨간모자의진실2 (전체) / 써니
10관 바니버디(전체) / 해리포터와죽음의성물2
리뉴얼 오픈기념 BIG EVENT 500만원 상당의 경품행사! 달라진 콜롬버스상무점을 소개하면 빵빵한 경품이 팡팡
하남점
1관 트랜스포머3 (12세)
2관 해리포터와죽음의성물2 (전체)
3관 고지전 (15세)
4관 고양이:죽음을보는두개의눈 (15세) 카2 (전체)
5관 퀵 (15세)
6관 퀵 (15세)
7관 바니버디 (전체) / 써니 (15세)
8관 고지전 (15세)
9관 해리포터와죽음의성물2 (전체)
10관 해리포터와죽음의성물2 (전체)
조조 영화한편 어떠세요? /호남최대주차장 / www.cinus.co.kr
3,000원 저렴하게, 선착순 30분께 이벤트 팝콘 증정
구. 런던약국사거리
☎ 1544 - 0600
MEGABOX
M관 해리포터와죽음의성물2 (전체) 최고급관
2관 고지전 (15세)
3관 고양이 - 죽음을보는두개의눈(18세)
4관 트랜스 포머3 (12세)
5관 해리포터와죽음의성물2 (전체)
6관 카2 (전체) / 고지전 (15세)
7관 퀵 (15세)
8관 바니버디(전체) /해리포터와죽음의성물2
9관 고지전 (15세)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차타워, 황금주차빌딩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함) :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북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
cinus
1관 바니버디 (전체) 해리포터와죽음의성물2 (전체)
2관 바니버디 (전체) / 트랜스포머3 (12세)
3관 바니버디(전체) /고지전(15세) /퀵 (15세)
4관 해리포터와죽음의성물2 (전체)
5관 써니 (15세) / 카2 (전체)
6관 퀵 (15세)
7관 고지전 (15세)
색깔있는 영화산책 *w설w.cinus.co.kr
씨너스전대대D(4K)상영!!